

한국산 오가피, 수출전략상품으로 등장

국제시세 고려인삼보다 28배 높게 형성

한국산 오가피가 수출전략 상품으로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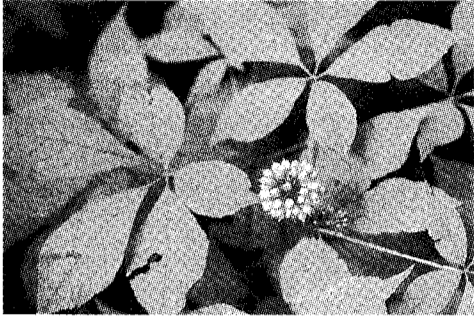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외의 임상실험 결과 암 세포 성장 억제, 간기능 개선, 당뇨병 및 발기부전 치료, 학습능력 향상 등에 효과를 지녀 '제2의 산삼'으로 알려진 한국산 오가피 제품에 대한 해외주문과 상담이 끊이지 않아 수출전략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주대 오가피연구실의 조선행 박사팀과 함께 오가피 열매를 이용한 제품 개발에 성공한 (주)계경바이오텍(www.kk114.co.kr)의 경우 작년말 미국에 오가피 열매 농축액 2천상자분(20만달러)

을 처녀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올들어서도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의 제약사와 식품사들로부터 상담과 주문이 잇따르고 있어 연말까지 적어도 200만달러 가량의 수출실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작년말 현재 국제시장에서 한국산 인삼이 분말기준으로 100g당 4.3달러에 거래되는데 비해 한국산 오가피 분말제품은 이보다 무려 28배나 비싼 100g당 120달러에 시세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계경바이오측은 "특히 최근에는 즐기나 잎보다 약효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늘어나는 해외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한국산 오가피 열매제품의 경우 100g당 최소 150~200달러선에서 국제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새로운 기술개발과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해 해외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84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60만평의 땅에 오가피를 재배해온 '수신오가피'(www.ogapy.co.kr)도 빠르면 내년부터 오가피 뿌리 제품 등을 수출할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 80년대말 미국의 유수 제약사로 부터 물량공급 제의를 받은 뒤 한동안 수출도 검토해왔으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준비작업 없이 선불리 해외시장에 뛰어들었다간 우리의 귀중한 자산인 오가피 재배와 생산과 관련된 노하우를 유출시킬 우려 때문에 한동안 이를 보류해왔다"면서 "그러나 이후 재배면적 확대와 신기술 개발 등에 힘입어 빠르면 내년부터

신약개발 바이오 벤처기업인 유니젠이 러시아 연해주에 여의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천연 약용 식물생산단지'를 조성한다.

유니젠은 1일 "연해주 하산군 크라스키노 지역에 여의도의 5배에 달하는 300만평 규모의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고 '천연 약용 식물생산단지(유니젠 바이오매스 콤플렉스)'를 설립, 천연 약용작물의 재배와 한랭지 식물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라스키노 지역은 북한에서 27km, 중국에서 25km 떨어진 곳으로 한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자루비노 항구와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다.

특히 이 지역은 게르마늄

토양이어서 약용 식물재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경원선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면 접근도 용이해 질 것이라고 유니젠은 설명했다.

유니젠, 연해주에 여의도 5배규모 "약초 단지" 조성

유니젠은 미국 UPI사, 러시아 극동대 및 우수리 농대와 공동으로 한국, 미국, 러시아 3국이 참여하는 한랭지 천연 약용식물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약용가공시설을 가동해 생산한 제품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다.

유니젠은 작년 4월 남양알로에로부터 분사한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천연식물신소재탐색기술을 바탕으로 한 '파이토로직스'라는 혁신적인 바이오 신소재 탐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백운산 일대 식물생태공원 조성

광양시, 2003년부터 본격 착수계획

광양 백운산 일대에 자연을 테마로 한 다양한 휴식공간과 미래생물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대단위 식물생태공원이 조성된다.

최근 광양시에 따르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서·문화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기 위해 시는 내년부터 오는 2001년(10년간)까지 광양시 옥룡면 백운산 일대 30만평에 사업비 450억원을 투입, 자연생태학습장과 생물산업 육성기반 구축, 휴양관광기능 등을 하게될 식물생태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사업비 1억원을 들여 기본조사 용역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1차 기본계획서를 납품받아 산림청에 제출,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을 요청키로 하는 한편 오는 7월까지 기본조사 용역을 완료, 내년에 10억원의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한 뒤 2003년부터 본격적인 생태공원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 생태공원에는 백운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자원식물과 약용식물을 주축으로 교육·경제·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을 자연생태학습장과 생물산업육성, 휴양관광 기능 등으로 다양한 식물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식물원, 건강타운, 테마마을, 놀이동산, 체험학습장, 자원식물센터 등 1만평 규모의 필요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백운산(해발 1218m)일대는 아열대에서 온대에 이르기까

지 956여종의 식물이 자생하는 우리나라 식물표본이 되는 생태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다 90% 정도가 서울대 연습림으로 수십년동안 계획적인 관리와 보존이 이뤄져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약용식물은 650여종에 이르고 있어서 미래 생물산업육성 거점으로도 최적의 여건을 갖춘 것으로 분석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백운산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광양시는 물론 광양민권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백제 허용 기준치 30ppm

국산·수입약재 동일기준 적용

수입한약재에만 적용했던 표백제 검사가 국산한약재까지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월15일 갈근 등 41종의 한약재에 대해 이산화황(SO₂)이 30ppm 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을 입안 예고했다.

현행 표백제 시험은 한약재의 유향훈증 또는 연탄 직화 건조과정 등에서 발생하여 잔류하는 SO₂에 대한 시험검사이나 그동안 수입한약재만 적용돼 국제무역거래상의 형평성문제가 우려되는 사항이었다. 따라서 식약청은 SO₂ 잔

류검사를 국내 생산 한약재와 수입한약재에 동시에 실시하고, SO₂ 검사기준을 식품공전에 규정된 식품첨가물 허용기준(30ppm 이하)과 동일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SO₂ 검사 한약재 품목)
갈근, 감수, 강활, 건강, 고본, 과루근, 금은화, 길경, 당귀, 맥문동, 미삼, 반하, 백령, 백두근, 백부자, 백삼, 백수오, 백작약, 백지, 부자, 사삼, 산약, 산자고, 삼릉, 상륙, 상백피, 석창포, 소두구, 우슬, 위유, 은시호, 의이인, 적작약, 제니, 천궁, 천남성, 택사, 판랍근, 패모, 황기, 행인 (이상 41 품목)

수출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가피는 산삼과 함께 오가피과에 속하는 식물로 한국,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동북부 지역 등에 서식하며 이 가운데서 한국산이 가장 뛰어난 약효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오가피는 특히 지난 76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국제약학 학술대회에서 당시 소련 과학

아카데미의 브레이크만 박사가 "시베리아에서 채취한 가시오가피에 대한 성분분석과 임상실험 결과 고려인삼보다 효능이 월등하다"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뒤 국내외 학계와 제약·식품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들였다. 현재 국제시장에서 유통되는 오가피의 60% 이상이 러시아산으로 알려졌다

자생식물 표준추출물 시료 제공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자생식물 이용기술개발 사업단

희귀식물이나 멸종위기 식물 등을 비롯해 국내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생식물 표준추출물 시료가 제작돼 국내 연구진에게 보급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자생식물이용 기술개발사업단(단장 정혁)은 지난달 26일부터 제주도, 울릉도 등지에서 서식하는 120종의 국내 자생식물에서 뽑아낸 200개의 추출물 시료를 관련 연구자들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식물추출물시료는 기능성식품, 생의약품 개발, 화장품 개발등에 필요한 연구재료로 그동안 표준화된 시료가 국가단위로 제작되지 않아 연구자별로 식물을 채집해 식물자원 훼손과 오염용이 문제가 됐다.

생명공학연구원은 이들 식물 추출물 시료를 20mg당 2천500원~5천원에 대학 및 기업연구소에 공급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돌려받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

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생명공학연구원은 향후 10년간 국내 자생식물 4천여종에 대한 자생식물 표준추출물 시료 은행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만추당귀 재배교육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만추당귀종자 보급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달 13일과 15일 농진청 작물시험장과 평창군 진부면에서 만추당귀 재배교육을 실시했다.

만추당귀 품종 육성자인 작물시험장 유홍섭 연구사 강의로 진행된 재배교육에는 전국에서 당귀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